

시론



강 동 완
前 조선대학교 총장

예(禮)·의(義)·염(廉)·치(恥)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예의(禮儀)를 갖추고, 의리(義理)를 지키고, 청렴(淸廉)함을 칭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회인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역사의 진화적 관점에서 광주정신의 두가지 내면을 살펴본다.

첫째는 인내천(人乃天)을 실천하는 정신이다. ‘사람이 하늘이다’는 정신은 사람과 하늘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늘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무엇보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홍익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무등산은 위대한 평등(平等)의 협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인내천 정신은 자주와 차별 없는 사회를 추구했던 동학혁명과 대한독립만세, 제국주의 타도, 피압박민족해방 만세를 외쳤던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관통하고 있다.

둘째는 가치공동체 대동정신이

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기층민과 학생 그리고 시민, 지식인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 생명존중 공동체, 대동사회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 공자에 의해 제안된 대동사회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라는 ‘천하위공(天下爲公)’ 사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를 뜻한다. 이러한 대동의 모습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 중 실현된 것이다.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공자는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천하 사람들에게 공유된다. 현명한 자를 등용하고 능력 있는 자가 정치에 참여해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이 아닌 남의 부모도 사랑하며, 자기 자식뿐 아니라 남의 자식에게도 자애롭게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삶을 편안히 마치고 젊은이들은 재주와 능력을 펼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혼자 남겨진 남편, 부인,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자들이 모두 부양되며, 남자는 모두 각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여자들은 돌아갈 곳이 있도록 한다. 물건은 아무 곳에 두더라도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스스로 하려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음모를 꾸미거나 간사한 모의가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행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문을 열어 놓고 닫지 않으니 이러한 사회를 일러 ‘대동 세상’이라 한다.

사회가 자본과 물질적 힘에 억압당하고 있지만 민주·인권·평화라는 정신적 가치는 민초들이 지키고 있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이념이나 주장 그리고 지역에만 가둬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제 우리는 광주정신을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문명사적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사자소학에 ‘예의엄치(禮義廉恥) 시위사유(是謂四維)’는 예의를 갖추고, 의리를 지키고, 청렴함을 칭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네 가지 덕목이라는 말이 있다. 부와 권력에도, 민주화 운동에도 예·의·염·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 진정한 지도자와 어른이 없다고 한다. 왜일까?

예·의·염·치가 없어서 그럴 것이다. 예·의·염·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근본이고 생명 정신이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도자와 어른들이 지켜가는 예·의·염·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메세나라는 용어를 처음 쓴 이후, 메세나는 문화·예술·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 외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 메세나가 기업인 중심의 문화예술지원이었지만 광주다움 메세나가 민초 중심의 실천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광주에 아시아 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그리고 고려인들과 새터민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권이나 교육, 의료, 복지, 금융 등에서 많은 취약점이 있다.

이 시점에서 도시의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메세나 모델이 만들어져 인종, 종교, 이념, 성별, 세대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는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가치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광주는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약자들에게도 넘치는 도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와 의 그리고 염과 치의 평화로움이 넘치는 세계 속의 도시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의엄치의 민초들에 의한 ‘풀뿌리 시민’ 행복한 광주다움 메세나 운동을 제안해 본다.

社說
중대재해법 통과에도 사망사고 잇따른다니

광주와 전남 산업현장에서 이를 동안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국회를 진통 끝에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완 입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 지족동 한 페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는 직원이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상반신을 심하게 다쳐 숨졌다. 근로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기 전 잘게 부수는 공정에서 작업을 했다.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원이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협력업체 소속인 노동자는 동료와 기계점검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노동계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안락 대책만 마련할 뿐, 노후화한 기계

의 안전설비 보강은 미흡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정의당도 당장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계속 남아 있다면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거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는다.

정치적 의제화에 성공한 중대재해법은 법제정으로 첫발을 뗀다. 그러나 처벌과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보완의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지권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우선해서 들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여야가 의견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 후진적 산업재해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겠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준비·관리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천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보관, 콜드체인 운송, 접종방법,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예방접종관리반’과 ‘이식반응관리반’으로 나눠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한다. 전문가 자문을 위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민·관 공동대책위원회에 둘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단’을 각각 구성해 운영한다. 백신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룩 엄격한 냉동보관과 전처리가 가능한 접종기관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접종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 집단시설 어르신·종사자, 성인 만성 질환자, 소아 및 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에 따라 코로나 기세도 꺾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 정부는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백신 구매에 나서야 한다.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 조심스럽게 희망을 걸어본다. 백신 접종 준비와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하겠다.

의정칼럼



김 용 집
광주시의회 의장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날씨가 동장군이 찾아와 시민들의 마음은 아직 끔찍 얼어있는 것 같다. 부디 올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이 신속히 재개 되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해 동안 우리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부분적으로 도입해온 재택근무제가 공공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정착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 지인 간의 대면모임이 축소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만들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가 코로나19로 온전히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이 몇 달째 어려움에 놓이는 위기가 이어지기도 했고, 경로당과 무료급식소가 일정기간 문을 닫으면서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쓸쓸히 외로움을 달랠아 했으며 아동돌봄서비스가 중단돼 맞벌이 가정은 자녀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지체장애인 돌봄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20대 발달장애 아들을 둔 60대 노모가 몇 달 동안 혼자 힘겹게 아들을 돌보다가 아들과 함께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기도 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강화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반대급부로 작용하여 사회적 약자 최소한의 복지안전망마저도 후순위로 밀쳐지고 있어 위드코로나 시대에 앞맞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2월1일 사랑의 온도탑이 전국 각지에 제막됐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씩 올라 목표가 달성되면 사랑의 온도탑은 100℃가 되며,

모여진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역대급 수해피해로 모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금액을 평소보다 20%가 줄여든 42억1천만원으로 정했으며 모금기간도 73일에서 62일로 단축했다고 한다. 목표금액과 모금기간이 줄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기부문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소외계층을 향한 도움의 손길과 더불어, 함께 나누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또 있다. 바로 현황과 장기기증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단체헌혈과 10대, 20대 헌혈량의 급격한 하락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 혈액보유량은 적정보유량인 5일의 절반인 2.5일분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긴급한 의료수술의 대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만약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기기증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자료를 보면 장기기증이 크게 줄어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1천262명에 달한

다고 한다.

제때에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하루 평균 6명에 달한다는 안타까운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기부(寄附·Don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와주거나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을 뜻한다. 기부는 ‘나눔과 연대의 더불어 상생하는 광주정신’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나눔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인디언 속담에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부터는 서로가 주변을 좀 더 살피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정성과 실천들이 모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먼 훗날 우리 모두는 2021년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지치고 힘들었지만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으면 한다.

취재수첩



김 동 수
(사회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광주 현직 구청장들도 재선을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듯하다. 올해 중반께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직자들의 신임부터 얻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어이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내식당이 없는 곳은 남구다. 남구는 2013년 청사 이전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고의적 살인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인간사회에서 술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훌륭한 매개체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좋은 일과 좋은 일에 빠지지 않는 술은 적당히 마시고 주도(酒道)를 지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가망신의 지름길이 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장인의 희식문화가 억제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농촌사회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삼삼오오 친구나 지인 등의 모임에서의 술자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음향호법’이나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2의 음향호법’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억제와 경고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음주운전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제2의 음향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사망사고 시는 벌금형 없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자차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대인배상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일지라도 정도를 지키고 적당한 음주를 한다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고의 있는 살인행위를 일컫는 안 된다.

〈주은숙·광산경찰서 평동파출소〉

겨울철 폭설 자동차 타이어 점검 필수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를 한 두 번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영하의 날씨에 노면이 얼게 되면 핸을 조작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항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정체로 차량차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대인배상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일지라도 정도를 지키고 적당한 음주를 한다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고의 있는 살인행위를 일컫는 안 된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사고가 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나중에 후회를 한다.

일부 차량 정비사들은 차량의 소모품 중 가장 먼저 체크 해야 할 부분이 타이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타이어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쪽 패스컴을 통해 보듯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타이어 파손으로 자동차가 전도 및 전복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부터 인식하고,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동차 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해 타이어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받는 습관을 당부드린다.

〈박태영·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